

5/12/24

설교 제목: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4 장 10-23 절

(빌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절관주** 고후 11:27

(빌 4: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절관주** 고전 4:11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 4: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절관주** 고전 9:12

(빌 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빌 4: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절관주** 롬 16:3-16

(빌 4: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라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절관주** 빌 1:13

(빌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물질을 후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해 첫 성인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후 그곳을 떠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과 아가야 지역(아덴 고린도)을 돌며 복음 전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세워진지 얼마되지 않은 신생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과 고난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대견하고 고맙고 기뻐했습니까?

그 당시 물질로 사도 바울을 후원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동안 빌립보 교회는 물질적인 후원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다시 후원금을 보내온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은 감격했고 고마왔습니다.

이 후원금은 단순한 물질적인 후원이 아닌 빌립보 성도들의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의 표시이자 복음 전파 사역에의 동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동안 중단했던 물질적인 후원을 재개해 준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빌 4: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단지 물질 때문만은 아니라고, 자신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한다고 말합니다.

(빌 4: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빌 4: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아무 것도 몸에 지니지 말고 가서,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공급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 10: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마 10: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 10: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마 10: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마 10: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마 10: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마 10: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전도자는 당연히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전도자로서의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하여 필요를 해결했습니다.

필요를 공급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을지라도 전도자들은 물질을 초월하여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입니다.

전도자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주어진 물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잠시 맡겨 놓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청지기 물질관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 16:9 A) 여호와와 그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서는 나이가 들어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당신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창 18: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창 18: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창 18: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창 18: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창 18: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기 원하며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질리도록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민 11:18)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민 11:19)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민 11:20)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민 11:21)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민 11:22)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민 11: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와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의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주님은 우리의 능력되십니다.

(겔 7:19)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사 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도 사역에 물질로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빌 4: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 4: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 4: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복음의 시초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47 년경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1,2,3 차 전도 여행을 했으며,
빌립보 교회는 2 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하였는데 그때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아가야 지역로 갔을 때에도 몇 번이나 후원금을 보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합니다.

(빌 4: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빌 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시 24: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만물을 소유하신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가진 전부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집을 돌보셔서 기근 동안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왕상 17:8)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왕상 17: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왕상 17:10)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왕상 17:11)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상 17: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왕상 17:13)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왕상 17: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상 17:15)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왕상 17:16)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복음 전파에 동참하며 사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과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문안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빌 4: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빌 4: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빌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마가 누가, 편지 전달자 두기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 중에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로마 황제 가족들을 말하며, 이것은 곧 복음이 로마 황제 집안에 전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 황제 집안까지 파고 들어 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 성도이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직접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지금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를 기도와 물질로 도움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맡겨진 모든 자원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데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